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예산 낭비' 심각

### 민주 김윤덕 의원 "계획상 협의 없이 숙소·사택 초과 이용 도시재생 금융지원, 수도권에 집중... 지역에도 확대돼야"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계획상 협의 없이 숙소 및 사택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주 직원용 숙소 및 순환 근

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53개 기관에서 4,465명의 초과 인원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었다. 혁신지역별로는 강원도 8개 기관(503명), 광주/전남 7개(1,389명), 부산 6개(477명), 대구 5개(699명), 경북(208명), 울산(65명), 전북(137명), 경남(263명) 4개, 충북(57명) 1개, 제주(9명)이며, 개별이전 기관도 9개(658명)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별 초과 운영 인원을 보면, 한전KDN 453명, 한국전력공사 412명, 한국농어촌공사 393명, 신용보증기금 280, 한국가스공사 223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22명 등 이었고, 개별이전 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주)은 351명을 초과했다. 전체 기관 153개 기관 중 53개 기관(34.6%)이 국토부와 협의 없이 직원 숙소사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418명을 협의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 직원 숙소 233명, 순환 근무자용 사택 350명이 이용하고 있어 165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협의 인원이 없지만 순환 근무자용 사택 109명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감정원 93명, 한국도지주택공사 91명 등도 초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협의되지 않은 채 이전 직원 숙소와 순환 근무자용 사택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주직원 숙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 지원이 지역균형발전에 발맞춰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9월까지 3년치 합계, 수도권 67%에 비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 사업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다고 할 때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 전주 모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받아

### 정성길 시의원 발의 조례안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주시가 앞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여학생(만11세~18세)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전주시가 지원하도록 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정성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 2만7,000여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만 지원돼오던 것을 전체 여성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3만2,000원선이며 전주시의회가 저소득층 학생으로 제한됐던 대상을 전체 여성으로 늘린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을 위한 차원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이미지가 높아지고 모든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이 확대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돼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적어도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되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의 역할·과제

### 민주 김수홍 의원, 2020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네번째 정책자료집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금융의 역할'을 19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며,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과 시장 다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취합 정리했다.

김수홍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수출업체 종사자를 비롯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언들은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김만기 의원 축산 약취 대책 촉구



전북도의 축산 약취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민·농가 고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만기(더불어민주당, 고창2)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좁혀진 개선되지 않는 약취 문제에 대해 전북의 현 실태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약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 약취'를 지난 2019년부터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T기반 축산약취모니터링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2개 사업에 30억원, 탈취탈 설치 등 21개 약취저감사업에 500억원 등 지난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535억원을 투자했고, 단속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취민원이 2017년 830건, 2018년은 1,081건, 2019년에는 1,383건으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약취 저감 개선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유호상 기자

## '농도' 전북 농어민 자긍심 고취 | 전북 삼라농정대상 수상자 확정 '보람찾는 농민' 최강술씨 등 3개 부문

전북도가 지난 6년간 '보람찾는 농민, 재밌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도정 제1번 과제로 추진한 핵심 농정정책인 삼라농정의 현장 공로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삼라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해 '제1회 전라북도 삼라농정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북도 삼라농정대상은 삼라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선도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에 공헌한 이들을 발굴해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추



진하는 의미있는 시책이다. 수상 부문은 보람찾는 농민, 재밌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으로 보람찾는 농민대상으로 정읍시 최강술씨는 현재 정읍시 태인면 이장협의회장으로 재직하며 정읍지역



최초로 국립종자원 버 보급종 채종단지(228ha)를 유치해 일반벼 재배 농가 대비 133% 수입증대 기여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재밌는 농업대상으로 군산시 장재순씨는 현재 우리농조합법인 대

표로 활동하면서 삼장생 친환경 쌀작목반(11농가, 10ha)을 결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마련, 위기의 법인을 사비를 털어 재 정비하는 등의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사람찾는 농촌대상인 무주군 초롱농마을은 46가구인 마을 주민이 혼연일치해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후 마을 자연환경에 맞는 '초리풍광놀이 축제'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상자뿐 아니라 농어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이 농도를 대표하는 전북에서 자긍심과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으로 구성된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북도연맹 제공)

## 선출직 공직자·출마예정자 당원 역량 강화 혁신방안 논의

### 민주 도당 혁신위 토론회... '시민정치학교' 개설 필요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지난 16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출마예정자, 당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양성빈, 김보금 혁신위원의 공동 발제를 통해 당원·당규에 규정된 교육연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하면서 2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혁신위원들은 당원·당규에 규정된 교육연수 관련 조항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부터 혁신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또한 당원·당규에 교육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출마 예정자도 사전 교

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이수한 후보에 한해 당에서 예비후보자 추천장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공천 심사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에서 교육연수에 관한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나아가, 출마 예정자와 현직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경진대회', '전북도 의정대상' 등을 개최, 수상 실적을 공천에 반영하는 혁신안도 논의됐다. 전북도당과 각 지방의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연수를 실행하는 주제로 교육연수 전문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지역 내 사회단체의 '교육프로 그램' 인증 등 참여를 유도하고,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정치학교' 개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315 농지연금지급01, 415 농지연금지급02, 0515 농지연금지급03, 0615 농지연금지급04, 0715 농지연금지급05, 30815, 30915, 130915, 130915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www.flpove.or.kr

#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r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임대료 인상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